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5월 29일(금)

(음력 윤 4월 7일)

Пятница

29 мая 2020г.

№ 21(11688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넛체고르스크 대지진 25주년 추념

▲ 지난 28일(목), 넛체고르스크 대지진 25주기를 추모하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 지역·시 정부 관계자, 지진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가족, 친척, 친구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넛체고르스크 지진 희생자 추모비에 헌화하였다.

1995년 5월 28일 사할린 북부지역에서 일어난 7.6 도의 강진으로 인해 넛체고르스크 부락 주민 3197명중 2040명이 사망했다. 넛체고르스크부락은 17초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취재: 이에식 기자)

친애하는 여러분!

6월 1일 우리는 국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이 날에 모든 사할린 및 쿠릴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은 여름의 시작과 긴 휴식을 상징합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어린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사할린 주에서는 어머니와 어린이 및 유아 문제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돕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지역 산모 자금 지원프로그램이 연장되었고, 탁아소(3세 미만 유아 시설, 주로 유치원에 포함)에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자녀를 둔 가정에 월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산 이후 병원에서 퇴원시, 신생아를 위한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지원 대책 건수로 볼 때 우리 지역은 러시아 내에서 선두주자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는 6월 1일에 여름 건강회복 캠페인을 시작할 유일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300개 이상의 캠프가 사할린의 어린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최근 몇 달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제한에 대한 인내,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빛과 따뜻함으로 채우고 친구, 친척들과 함께 좋은 휴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온라인 투자협의회 회의 진행

지난 26일, 러시아 기업인의 날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투자협회의회의의 온라인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생방송으로 OTV-사할린 텔레비전 채널뿐만 아니라 왈레리 리마렌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도 진행됐다.

사할린 지역에서 3단계 방역제한 해제가 시작된 가운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사할린의 사업활동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거의 모든 유형의 사업체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할린 당국은 기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저금리 융자 지원, 지역 및 도시 자산에 대한 임대료 지불 연기 등의 측면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왔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사할린 온라인 비즈니스>사이트의 인기가 많아졌다. 현재 932개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투자협의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어, 아니와 구역의 한 개인 사업가는 쓰레기 수거 비용을 검토하고 고체 폐기물량 산정기준을 m3당이 아닌 무게(톤)로 할 것을 요청했다. 이 문제는 주주택공공경리부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업은 토지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토지 이용과 개발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고, 사할린 건설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는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3면에 계속)

단신

사할린주, 어린이 놀이방·나이트클럽·노래방 계속 영업 중단

사할린 주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이 업무를 재개하였다. 5월 26일부터 사할린 지역의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대중 오락 행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업체들만이 지속적으로 영업 중지 상태다. 그 중에는 어린이 놀이방,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이 있다.

지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외식 및 급식 시설들이 제한적으로 영업하기로 했다. 물담배, 공공 행사(연회 및 파티) 개최, 뷔페 등이 금지되어 있다.

외식 산업 기업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동시에, 손님 접대에 대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테이블간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테이블에는 2명 이상이 앉을 수 없으며, 한 공간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야외에서의 대규모 이벤트는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사할린 외식 업체들은 러시아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사할린주관리국에 업무 재개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직활동 권고사항을 받아야 한다.

사할린주, 유치원 졸업식에 학부모들 참석 가능

사할린 지역의 유치원과 학교는 5월 말에 학기가 끝난다. 유치원 졸업을 앞둔 미취학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아나스타시야 키티와 주교육부장관은 "유치원 졸업식에 참여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자주 문의했다. 사할린주에서는 현재 역학적 상황이 안정적이다. 모든 취학전 기관들이 2주째 정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졸업식은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25일 사할린 학생들은 온라인 형식의 전러시아 행사 '마지막 종소리 2020'에 동참했다. 러시아 교육부 공식 페이지 <https://vk.com/minprosuet>에서 사할린 시간으로 18:00에 방송이 시작되었다. 유명 블로거들과 뛰어난 교육자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사할린 지역에서 이 기념행사는 온라인 형식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며 6월 5일, 학교내 공식 행사들이 진행될 것이다. 안전 수칙을 지키고 행사를 개최할 것인데 날씨가 좋을 경우 학교 본관 앞 광장에서 "마지막 종소리"를 열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9학년 기말고사(기본국가시험)가 취소되고 대학 진학할 계획이 없는 11학년 졸업생은 단일국가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11학년 졸업생들의 국가시험은 6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22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 코로나19 결과는 위생·역학 센터의 검사에 달려

올레그 레습스키 실험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

사할린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로는 러시아 85개 연방 주체 중 거의 끝자리인 83위에 있다. 이번에 본사 **배순신** 기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맡은 사할린주 위생·역학 센터의 실험연구소 **올레그 와실리에위츠 레습스키** (48세) 소장과의 인터뷰를 하였다. 레습스키 소장 인터뷰 섭외에는 새고려신문 애독자이며 동 연구소의 위생실험실 박정순씨가 협조했다.

— 우선 실험연구소 구성이 궁금합니다.

— 저희 연구소는 5개 실험연구실 (위생실험실, 기생충 실험실, 바이러스실험실, 위험전염특수실험실, 미생물 실험실) 외에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에는 전문가만 해도 약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험연구실 2개가 코로나 테스트를 맡고 있는데 바로 바이러스실험실과 위험 전염 특수연구실험실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테스트 양이 너무 많아서 거의 24시간 일합니다. 검체는 24시간 어느때나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필수 있는대로 마지막 테스트까지 다 바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밤 12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위생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항에 나가 매 항공편의 조사를 돕습니다. 검체 수집은 여러 의료기관 의료진들이 해서 저희 연구소에 넘깁니다.

— 하루 테스트를 얼마나 합니까?

— 상황에 따라 다른데 500개부터 1000개, 아주 많이 할때는 2000개도 합니다. 공항에서 익스프레스 테스트로 양성 판단이 나온 경우 그 항공편 승객 모두의 검체를 바로 우리 연구실로 가져와 검사합니다.

사실 이미 두달 넘게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이 작업에 좀 적응이 됐다. 체계화 됐다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 최종 결과를 받기 위해 <벡토르> 연구소에 보내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노워시비르스크까지의 항공편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때로는 다른 도시를 경유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검체를 보호케이스로 운송해야 하고 여러 안전 수칙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일 외에는 테스트와 관련해서 의료진들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검체 채취 방법부터 시작해서 조사 질문 응답까지 포함해서요.

— 테스트 결과는 얼마만에 나오고, 전에 노워시비르스크 <벡토르> 연구소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결과는 다음 날 바로 나오고 4월 14일부터는 우리 연구소의 테스트 결과가 바로 최종 결과로 발표됩니다. 이 권한을 우리에게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이 주었습니다.

— 사할린에서 하는 테스트가 어느정도 정확합니까?

—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현대적이고 우리의 연구 기술과 방법도 과학적이고,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안전한 방법입니다. 방법에 대한 얘기가 너무 전문적이니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못하나 정확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주 정확해요. 98%, 혹은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부정확한 결과도 나옵니다.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게 말입니다. 그때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재확인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는거죠. 검체 채취에 문제가 있나, 검사하는데 문제가 생겼는가...

잘 아시다시피 코에서 채취한 검체를 우리 연구소 외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안쿠지노브 병원 연구실험실에서 검사하는데 그 병원 테스트 결과를 바로 우리 연구소에서 확인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사할린주에서 유일하

5월 28일 사할린 코로나 감염 상태—확진자 89명, 49명 완치되고 퇴원, 40명은 입원 중. 사망 사례는 없음.

게 코로나19 감염 확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얼마전에 유즈노쿠릴스크에서도 감염자가 생겼는데 쿠릴주민 테스트도 여기에서 합니까?

— 네, 당연히 여기에서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바로바로 이쪽으로 운송하기가 어려워 며칠 수집하고 많은 양을 가져옵니다.

우리 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만명당 테스트 수는 많은 편입니다.

— 연구소 직원들은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있나요?

— 물론이죠. 1주일에 한번 꼭 하려고 합니다. 직원중 감염된 사례도 없고 검사를 하는 실험방은 최선의 방법으로 철저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 사할린 코로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할린정부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말 조치를 잘 취했다고 봅니다. 방역을 위해 항상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전문가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사할린이 끝까지 코로나가 널리 확산되지 않은 지역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할린주, 교통수송 보안 강화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23일 (토) 주최한 비상사태위원회에서 사할린주의 교통 수송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 투쟁의 해체 조치를 이행하는 가운데 사할린 지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무원,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사에게도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모든 여객기 승무원은 비행 중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승객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사할린으로 입도하는 승객의 약 90 퍼센트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오직 60 퍼센트의 승객만이 장갑을 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침을 하는 등 감기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비행 중 꼭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러시아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사할린관리국 올가 푼투소와 국장이 표명했다.

또한 승무원들은 다음 비행시간까지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연락선을 통해 사할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자들은 배를 타는 동안 화물차 안에 있어야 한다. 트럭 운전자들은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주유소에 들릴 경우 꼭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려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할린 지역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현지 거주 등록을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디지털 출입허가증을 발급한 뒤 사할린에 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또 사할린주에 오기 위해서 사전 디지털 출입허가증 발급을 한 자는 5월 27일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사할린 방문 3일 전)을 했다는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 모 저 모

주민들에게 사할린 국립대학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사할린 국립대는 온라인 형식으로 오픈레이를 개최할 것이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대학이 '두 개의 졸업장'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학부 회의의 열 예정이다. 주지사와 대학 지도부는 입학 지원자들과 그들의 부모의 질문에 답할 것이며 이 행사는 5월 29일, 15:00에 대학 본관에서 시작된다.

해당 회의에는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방송은 OTV-사할린 텔레비전 채널과 "구베른스키에 웨도모스티" 미디어의 소셜네트워크, 그리고 주지사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지사의 개인 계정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imarenko_officia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valery.limarenko>)
오드노클라스니키(동창) (<https://ok.rurenko>)
브콘택테 (https://vk.com/limarenko_official)에서 질문할 수 있다.

지난 주정부 회의에서는 사할린 국립대를 기반으로 디지털멀티대학을 설립할 계획에 따라 국내 주요 대학들과 공동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잠재적 파트너로는 러시아 굽킨 석유 및 가스 대학, 모스크바공학물리연구소 부속 국립원자력대학,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극동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정보 기술 기계 및 광학 대학, 고등 경제학교 외에도 가스프롬, 로스넵치, 로스아톰, 로스텔레콤, 안텍스등의 대기업이

있다. 올해 417명의 사할린 대학생들이 사할린을 떠나지 않고도 국내 주요 일류 대학에서 두 번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만들 계획인데 그 중에는 생산, 경제, 마케팅 효율성의 관리; 오늘날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언어학; 신경학; 디지털 사회·도시; 위험 지역에서의 탐험, 설계 및 건설; 국제 및 지역 경제, 디지털 물류 등이 있다.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жут о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я СахГУ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ойдет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в онлайн формат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дет родительское собра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переходу вуза на программу «двух дипломов». Губернатор и руководств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тветят на вопросы будущих абитуриентов и их родителей в прямом эфире. Он начнет 29 мая, в 15:00 в главном корпусе вуза.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можно будет в онлайн. Трансляция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в официальных аккаунтах главы области на YouTube и в Instagram, а также на телеканале «ОТВ-Сахалин»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медиахолдинга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можно в личных аккаунтах губернатора: в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limarenko_official), Фейсбук (<https://www.facebook.com/valery.limarenko>), Одноклассниках (<https://ok.ru/valery.limarenko>), ВКонтакте (https://vk.com/limarenko_official).

На последнем заседан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ли концепцию,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на базе СахГУ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вивать цифровой мультиуниверситет, запустив совместную программу с ведущими вузами страны. Сред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Росси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нефти и газа имени Губкина, НИЯУ МИФИ, МГУ имени Ломоносова,

ДВО РАН, ИТМО,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а также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Газпром, Роснефть, Росатом, Ростелеком, Яндекс и др. В этом году 417 студентов остров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бучающихся на бюджетной основе,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тор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ведущих высокорейтинговых вузах страны, не выезжая из регион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филей. Среди них: управл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ью добычи, нефтепереработки и сбыта; компьютер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получила развитие во всем мире; нейропедагогика; социальная и цифровая урбанистика; изыскани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опасных зонах; международная 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цифровая логистика.

어린이 도서관, "위대한 승리 기념"콘테스트 결과

사할린 아동도서관이 개최한 지역 문예 창작 경연대회 '위대한 승리 기념'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대회는 기념과 영광의 해의 일환으로 1941~1945년 대조국전쟁 75주년을 기념하고, 애국지향의 독서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소개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216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했다. 사할린주의 13개 구역과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에서 총228건의 출품작이 접수되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부문 작품을 출품했다. "기억하기 위해 읽으라!" - 자작 문학 작품(독후감, 작문, 시)

"책의 기억 속에서 - 전쟁의 순간들" - 책 추천을 위한 책 리뷰 및 대조국전쟁의 주요 사건에 대한 북트레일러

"전쟁이 있었다... 승리가 있었다!" - 그림(그룹 별): (8면에 계속)

지방 어르신들: "선물세트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한인협회 관계자, 크라스노고르스크와 샤흐초르스크를 다녀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사할린주한인협회가 75세 이상의 주내 어르신들을 위해 식품세트 531개를 준비해 5월 14일부터 전달하기 시작했다. 먼저 전해진 식품세트들은 코르사코브, 비코브, 홈스크, 체호브, 네웰스크 등에 계신 어르신들이 잘 받았다고 전해졌다.

지난 24일(일)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배영희 사무국장, 청년부의 김 아르쎌 회원과 필자가 크라스노고르스크(토마리 구역)와 샤흐초르스크(우글레고르스크 구역)를 다녀왔다.

아침 8시경 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협회의 봉고차로 이동한 우리는 사할린 서북쪽으로 약 200km를 달려 11시가 조금 안 되어 크라스노고르스크에 도착했다. 약속한 야외 장소에서는 우리를 문종기 크라스노고르스크 한인회장이 맞이했다. 이 곳에 한글학교 김련화 강사와 그의 학생도 찾았다. 한인회 측은 이들에게 4월 30일 사할린국립대와 사할린주한인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민족문화 경시대회 참가증서와 참가상을 전했다.

이후 문종기 회장을 따라 크라스노고르스크에 계시는 열한분의 어르신들의 댁에 방문해 주한인협회에서 준비한 식품세트를 전해드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손님들을 반가이 맞으신 어르신들은 '선물 고맙다'고 하며 '꼭 차 대접이라도 하고싶다'고들 했는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저 짧은 대화 후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다음 목적지는 샤흐초르스크였다. 오후 1시반 쯤 도착했다. 샤흐초르스크한인회는 실내 장소를 마련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2시부터 3시까지 찾아올 수 있었다.

최문갑 샤흐초르스크 한인회장은 "현재 이 도시에서 75세 이상의 어르신이 31명"이라고 알리고 "올해는 특별히 어버이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어르신 다수는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온다고 하니 회기가 소집될 줄 알았으나 식품세트 전달이라고 알고난 후는 감사를 표하고, 한편으로 여러 문제를 궁금해 하셔서 오랫동안 장소를 떠나지 않고 주한인회장에게 질문들을 하였다. 박 회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앞으로 한국 국제의료보건의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샤흐초르스크 어르신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3시까지 식품세트 전달이 마무리되고 우리는 바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향했다.

이날 주한인협회의 청년부측에서 봉사에 나선 아르쎌 군이 이 날 식품세트를 들고 다니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크라스노고르스크에서는 물론, 샤흐초르스크에도 일부 어르신들을 집까지 모셔다드리고 선물세트도 들어 드렸다.

"사실 이날 샤흐초르스크에 갈 겸 이 도시와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우글레고르스크 한인 어르신들에게도 식품세트를 나누려고 했는데 강수복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장이 코로나 사태로 이번에 주한인협회 대표단을 맞이하지 못하니 6월에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박순옥 회장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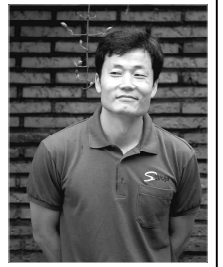
한편, 우글레고르스크 구역은 한인들이 집중해 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가장 먼 지역 중 하나다. 주도시에서 샤흐초르스크까지 거리는 305km이며 일부 도로는 비포장이다.



(취재: 배순신 기자)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꿈같은 하루

겨울밤이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장을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려는데 직원들이 한 잔 하고 다음날 가라며 붙잡았다. 그리고 싶었지만 다음날은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회사에 출근했다가 조퇴를 하고 상을 받으러 갈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자정 넘어 중부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눈발이 제법 날렸다. 고갯길을 넘어섰는데 내쪽으로 상향등을 번쩍이는 차가 보였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순간 회사 승합차는 이미 빙판길에 들어서 있었다. 차 꼬리가 핑그르 돌자 재빨리 핸들을 반대로 감았지만 차는 빙글빙글 돌며 고속도로 위를 미끄러져 갔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여러 생각이 들었다.

문득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꼼작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곧 엄청난 소리와 함께 이 장면이 끝날 거라는 것도, 결말이 비극일 것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자동차는 직선으로 뻗은 고속도로 위를 컬링스톤처럼 미끄러지다 중앙분리대를 몇 번 들이받고 멈췄다.

갓길에 차를 댄 뒤 내려서 담배를 하나 입에 물자 온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광광 부딪치고 비상등을 켜는 아수라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회사차에 올라탔다. 거기서부터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길인데 눈과 빙판길 때문에 거북이처럼 움직여 새벽이 되어야 집에 도착했다.

내가 온 것도 모르고 따뜻하게 잠든 아내와 부드러운 아기를 보며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나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로 이들을 깨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누우면 긴장이 풀려서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일찍 출근을 했고 오전 근무를 마친 다음 상을 받으러 시상식장에 갔다. 팔 년 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목표로 정했던 상이었다. 드디어 그 상을 받고, 여기저기서 축하를 받고, 모르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뒤풀이 자리에서 왁자지껄 웃고 마시면서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 이 자리에서 나를 지워도 여전히 즐겁고 떠들썩하려니 생각하자 괜히 쓸쓸했다. 웃으며 악수하고 대답하는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틀 밤을 자지 않았고 밤새 술을 마셨지만 쓰러지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아침 일찍 집에 돌아와 다음날 정오까지 죽은 듯 잤다. 무거운 머리와 쓰린 속으로 일어났더니 오후만 남은 일요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원히 쉴 뻔 했다가 다시 정신없이 달려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낯설었던 어제 하루가 꿈처럼 아득했다. 참 이상한 꿈이었다.

광주에서 김남중

사할린주, 온라인 투자협의회 회의 진행

(1면의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토마리 구역의 기업인들도 역시 토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주지사는 투자협의회가 열린 소통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됐다고 언급했다. 사업가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덕분에 건축허가 발급 시간과 기업 등록 시간, 절차 등을 단축할 수 있었다.

사업과 함께 지역의 환경 상황을 개선하고 사할린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차량을 NGV 연료로 전환하는 프로그램과 새로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다.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ун Вон Ён: «Сахалинская жизн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С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бучались три студента из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месте с молодыми людьми из Китая и Японии ребята усердно постигали основы русской филологии, участвовали в раз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для них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В начале второго семестра двое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Читатели газеты уже знакомы с небольшим рассказом студентки Ким Чхери. А вот ещё один новый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й опыт девушки, которая оста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и продолжила заниматься со своими российскими педагогами, но только теперь дистанционно.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Мун Вон Ён. Моё русское имя – Лариса. Я студентка по обмену из Кореи. В сентябре 2019 года я приехала на остров, чтобы изучать русский язык. Сейчас я учу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ахалинская жизнь для меня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Здесь так много скверов и парков, поэтому, когда я гуляю, у меня в этот момент необыкновенно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Мне памятливы первые урок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тому что тогда я училась вместе с японскими и кита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Мне это так нравилось!

А во время каникул (они были 3 месяца) я поехала в путешествие: побывала в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Я одна летела в самолёте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Москву. Когда я зашла в самолёт, то внутри самолёта было чисто и комфортно, поэтому мне было приятно.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оссии был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Я думаю, что Москва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красочные, прекрасные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е города. После путешествия я верну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 меня возобновились занятия.

Но сейчас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я занимаюсь только по компьютеру. Я живу в общежитии, сейчас рядом нет друзей. Иногда от этого грустно! Но каждый день у меня есть встречи с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по скайпу, поэтому у меня нет времени грустить. Мне нравится учитьс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это делает мою сахалинскую жизнь интересной.

Студентка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Мун Вон Ён.

사할린 생활은 매우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원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2019년 9월 러시아어 공부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은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생활은 매우 즐겁습니다. 특히 공원들이 많아서 산책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중국친구들, 일본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 3주동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여행을 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러시아의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안은 깨끗하고 편안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러시아 여행은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화려했고, 아름다웠고, 매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여행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돌아왔고, 다시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숙사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이 없어서 매우 슬프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습니다. 나는 러시아어를 좋아해서 사할린의 생활이 즐겁습니다.

К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Далёкое-близко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овесть

Ян Вон Сик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посвящается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17, 18, 19, 20)

Капитан Хван, — продолжал Антон, — рассказал мне о другом корейце, генерал-майоре Федоре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корейское имя Ким Джун). Это довольно известный в Красной Армии военачальник. В годы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Ким Джун боролся за устано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середине 1920-х он преподавал тактику в Киевском военном училище, где учились иностранцы. Ким Джун, кроме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великолепно владел еще и китайским. Война застала его в Саратове, где он в звании полковника рабо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Военного училища. В начале 1944 года его направили на фронт. Там ему присвоили звание генерал-майора. Он был начальником штаба дивизии. В одном из сражений генерал-майор Ким Джун погиб.

— Жалко, такой человек погиб, — вмешался Петр Пак, — я тоже о нем слышал... Вероятно, из всех корейцев, кто воевал на этой войне, он один носил звание генерал-майора.

— В Москве у нас в госпитале лечился Петр Иванович Цой, подполковник. Вскоре он снова ушел на фронт, — произнесла Ким Енхи.

— Откуда он? — спросил Григорий Ким.

— Я его хорошо знаю. Он мой земляк, — сказал Антон, — родился и вырос в Даджон джэ (Синельниково) на Суйфуне. В 20-х по комсомольской путевке учился в Военной школе, по ее окончании служил командиром кавалерийской роты. Незадолго до войны он окончил танковое училище и командовал батальоном.

— Слышала, что некоторые наши москвичи-корейц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защите осажден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в 1941- 1942 гг. Одного из них я недавно ви-

дела здесь, в Москве. Его зовут Ким Кильсон, — сказала Инсун Цой. — До войны он учился в Москве в ФЗУ, затем работал на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ом заводе. В сорок первом Ким Кильсон ушел на фронт добровольцем...

— Защищая Ленинград, погиб первый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москвич, коммунист Ким Тхэхен, — сообщил Сергей Иванович.

— Что вы о нем знаете? — спросила Нина, — я много слышала о нем еще до войны.

— Ким Тхэхен учился в Корейском педтехникуме, потом здесь, в Москве. Он и его жена Ан были аспирантами Институт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 1939 году блестяще защитил кандидат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в Ленинграде на тему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Перед войной работал в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по составлению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го 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ей. К сожалению, — продолжал Сергей Иванович, — ему не удалось завершить эту большую и нужную работу. В первые дни войны Ким Тхэхен добровольно вступил в народное ополчение. Вскоре командование назначило его комиссаром батальона. Личным примером комиссар Ким Тхэхен вдохновлял солдат на подвиги, но в одном из сражений он героически погиб. Его жена не смогла перенести утрату. У нее началось расстройство нервной системы, и сейчас она находится в больнице. У них малолетняя дочь, которую воспитывает одна добрая русская семья.

— Сергей Иванович, вы поведали нам тяжелую историю... Война принесла много горя всем советским людям, — сказала Нина.

Корё ильбо. 2005.8-24 апр., 6-20 мая.

Источник: Д. В. Шин, Б. Д. Пак, В. В. Цой.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Нарушитель режима самоизоляции приговорён к четырём месяц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Житель города Ыйчжонб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иговорён к четырём месяц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за нарушение режима обязательн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с целью сдержива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COVID-19. Как отмечено в решении суда, 27-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ец по фамилии Ким был признан виновным в том, что самовольно оставил место прохождения карантина. 14 апреля он покинул свою квартиру, в которой должен был проходить двухнедельную самоизоляцию после выписки из больницы Святой Марии в городе Ыйчжонбу, в которой был обнаружен очаг инфекции. Он был задержан и отправлен в центр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в Ян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куда тоже бежал. Он был арестован и обвинён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о контроле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аказание за нарушение режима самоизоляции до одного года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или штраф до 10 млн вон (8.120 долларов). Решения суда по аналогичному обвинению ожидает также 68-летний житель сеуль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онпха-гу.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522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поделится опытом борьбы с COVID-19 со странами-членами МАГАТЭ

РК решила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опытом в борьбе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со странами-член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МАГАТЭ).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МАГАТЭ получит от РК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300 тыс. долларов.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медицинской радиологии и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также поделятся со странами-членами МАГАТЭ техническим опытом в борьбе с вирусом. Ре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было принято в ответ на призыв руководства МАГАТЭ оказать помощь развивающимся странам.

Командование сил ООН представило результа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ерестрелки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Во вторник Командование сил ООН озвучило результа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ерестрелки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произошедшей 3 мая. В тот день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направл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торожевого поста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были произведены четыре выстрела, после ч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открыли ответный огонь, произведя 30 выстрелов. В Командовании сил ООН отметили, что неважно - кто первый начал стрельбу, важен тот факт, что обе стороны открыли огонь, тем самым нарушив соглашение о перемир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командование воздержалось от высказываний по поводу того, был ли огонь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а намеренным или случайным, поскольку Пхеньян не стал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проведении расследования. Такая позиция противоречит мн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которые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открыли огонь случайно. В Командовании сил ООН также сообщили, что военные КНДР использовали мелкокалиберное оружие, что также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озиции Юга, который настаивает на том, что стрельба велась из зенитного орудия. В этой связ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выразили сожаления по поводу выводов Командования сил ООН.

МИД России: Граждане КНДР, остающиеся в России, не осуществляют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Граждане КНДР, которые не успели уехать из России, с 22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е осуществляют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ни отправятся на родину, как только будет восстановлено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приостановленное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в четверг на брифинге в Москве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Она напомнила, что с начала февраля по реше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н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этой связи репатриация рабочих был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Между тем,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была репатриирована до прекращения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 отметила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Более 30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COVID-19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2 мая, 30.174 южнокорейца вернулись из 103-х стран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 в воскресень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спользовало все возмож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аналы, что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перевозку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Около 1.700 человек вернулись на чартерных рейсах, 15.800 человек – на регулярных рейса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авиакомпаний, а около 770 человек – на регулярных рейсах зарубежных авиакомпаний. Кроме того, около 250 японских граждан вернулись из ряда стран на родину через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эропорты, а около ста южнокорейцев – через японские аэропорты.

56-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Daejong Film Awards состоится за закрытыми дверями

56-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инопремии Daejong Film Awards или Grand Bell Awards состоится 3 июня за закрытыми дверями в отеле Grand Walker Hill Seoul. В этом году на высшую награду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фильм» номинированы пять работ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 «Паразиты», «Экстремальная работа», «Колибри», «Свидетель» и «Запретная мечта». Оскароносная комедия «Паразиты» претендует на награды в 11 номинациях. Церемония должна была пройти 25 февраля, но её отложили более чем на три месяца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RKI)

«Вопрос победы над вирусом стал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стоковеды об опыте Южной Кореи в борьбе с COVID-19

Властям Южной Кореи удалось остановить массовое зараж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ом без введения жесткого карантина, при помощи метода «трех Т»: от английских глаголов trace, test и treat — следить, тестировать, лечить. О том, почему корейцы не противятся системе тот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перемещений и почему Южная Корея справляется с пандемией лучше, чем США и Россия, рассуждают востоковеды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и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С первых дней пандем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ввели массов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селения: при малейших подозрениях на COVID-19 человека отправляют сдавать тест. При положительном результате заразившегося расспрашивают, где он был и с кем контактировал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а также с помощью IT-технологий анализируют данные GPS в его телефоне или машине, записи с камер наблюдения с распознаванием лиц и данные о месте покупок по кредиткам. С помощью этих данных примерно за десять минут выстраивается подробный маршрут передвижений заболевшего. Получ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загружают в открытый доступ на сайт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е указываются только имена и адреса заразившихся. Тем, кто мог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с больным, на телефон отправляют сообщение с просьбой сдать тест.

В специа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для смартфона, разработанном по госзаказу, любой житель Южной Кореи может проложить маршрут передвижения по городу так, чтобы он не пересекался с маршрутами заразившихся. Можно также скачать приложение, которое подает сигнал тревоги, если в радиусе 100 метров от владельца смартфона есть место, где был недавно заболевший человек.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нмин в Сеуле:

У наблюдателя со стороны может ошибочно сложиться мнение, что происходящее — слежка. Корейцы это слежкой не считают. Они не боятся,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которую он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государству,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а им во вред.

Насел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в принципе склонно доверять власти. Корейцы в гораздо меньшей степени ожидают от власт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й, чем, скажем, россияне или американцы.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комендует чего-то не делать, люди этого не делают. Корнями эта особенность уходит в конфуцианскую политическую культуру. Для нее характерно убеждение, что власть — это не рэкетир, а организатор производства. Так был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ысячелетий, потому что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риса не вырастишь б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частия. Иногда это приводит к печальным последствиям, потому что без такого доверия невозможны были бы ни эксцессы Мао Цзэ-дуна 50–60-х годов, ни Ким Ир Сена 70–80-х годов XX век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ак мы видим, иногда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ость идет на пользу.

Надо заметить, что люди доверяют институту власти, а не конкретной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Уровень политизац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крайне высок. Страна расколота на два лагеря — правый и левый, примерно раз в десять лет они с большим шумом сменяют друг друга у власти. Но, несмотря на политическое ожесточение, распоряж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блюдаются. Когда людям сказали, что нужно носить маски, их надели абсолютно все. С конца февраля на улице просто не увидишь человека без маски.

В начале пандемии оппозиция пытала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ситуацию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го из козырей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на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на 15 апреля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сторон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сыпались обвинения в том, что оно плохо справляется. Однако как раз в это же время резко ухудшилась ситуация во всем мире, и на фоне тревожных сообщений, поступающих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выглядеть крайне благополучно. Так что на выборах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ропаганда во многом сработала против нее самой, и провластные партии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ли присутствие в парламенте.

Большую роль в успехе Южной Кореи в борьбе с пандемией сыграли каче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наличие соб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в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за счет чего очень быстро налади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тестов.

Сейчас многие говорят, что авторитарные режимы успешнее справляются с эпидемией. Так вот, на мой



взгляд, американский режим куда более авторитарный, че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дело даже не в типе режима. Можно ввести жесткий карантин и добиться от граждан его соблюдения с помощью полицейского контроля. Это лучше получается у авторитарных режимов. А можно действовать методом убеждения, но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ы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доверия населения к власти и социальная дисциплина.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допустили серию типичных ошибок, связанных с нежеланием идти на репутационно неприемлемые меры, наподобие полного закрытия границ. Тем не менее, как только ситуация стала критической и дело уже дошло до требований об импичменте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е Ина, власти быстро взяли себя в руки и нач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эффективно.

Масла в огонь подливало ожидание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очень важных для президента, потому что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стать для него вотумом доверия. Вопрос победы над вирусом стал политическим, и на него были брошены все силы и ресурсы. Мун Чже Ин сумел справиться с эпидемией и на фоне этих успехов получить подавляющее преимущество в парламенте.

Заметим,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т демократии в полном смысле эт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У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ма мног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изнаков, но если вспомнить Закон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прещающи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ую идеологию и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е контакты с жителям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Прим. ред.), то станет ясно, что демократия там достаточно условная. Поэтому не стоит считать демократом и Мун Чже Ина. Он умелый игрок в престолы и хорош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популист.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победила коронавирус из-за того, что это страна 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весьма некорректно.

Скорее наоборот: Южная Корея сумела быстро справиться с эпидемией, потому что ввела целую серию мероприятий, ограничивающих свободу передвижения граждан. Аналога российск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там не было — сидеть дома обязаны только люди с подтвержденным COVID-19, — но введенный цифровой контроль, пожалуй, даже более жесткий. Не говоря уже о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поправках, которые позволили применять уголовное наказание к нарушителям самоизоляции.

Есть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деталь, о которой многие забывают: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будь то война или эпидемия, начинают работать совершенно иные механизмы контроля общества, и само общество начинает воспринимать эти меры контроля по-другому.

Также надо понимать, что обе Кореи —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 из-за своего соседства имеют более высокий, чем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уровень готовности к войне, в том числе с применением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пораж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задолго до того, как там произошла первая волна заражений, прошли учения для медиков, где отрабатывались медицинские меры на случай эпидемии. И как только они отыграли этот сценарий, он стал реальностью. Корейцы оказались к нему подготовлены, в отличие от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поначалу восприняли вспышку коронавируса как нечто, имеющее мало отношения к жизни.

Подготовили Ксения Праведная, Мария Хохлова, Дарья Стробыкина

Источник: <https://snob.ru/entry/193179/>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ешла к третьему этапу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й

С завтрашнего 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ткроются рестораны, кафе, столовы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подписал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регионе, заве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запрещено курить кальян, проводить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анкеты и фуршеты),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шведские столы.

Заведения общепита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с 7 до 21 часа. При этом помещ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к приему гостей – установить перегородки или разместить столы на расстоянии в полтора метра друг от друга. За одним столом должны находиться не более 2 человек. В помещении смогут собираться не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можно проводить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Остров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общепита следует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 уведомить управление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работы и получ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крылись все предприяти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ех, которые связаны с проведением массовых развлечений. Напомним,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бласти заработали торговые центры и магазины с промышленными товарами.

Свыше 3 тысяч защитных костюмов и 6 тысяч одноразовых перчаток поступил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Медицинские изделия распределяют между лечеб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региона. Средств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для борьбы с COVID-19 сахалинским медикам передал Фонд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оручению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я Трутнева.

– 25 мая мы получили 3100 защитных комбинезонов и 6200 одноразовых перчаток, – рассказал зам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ктор Грицаенко. – Эти средств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инфекцио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амбулаторно-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звена,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аэропорту, занимаются обходом по домам, проводят забор биоматериала.

Часть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а сотрудникам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ени Ф.С. Анкудинова.

– Помощь, которую мы получили, – хорошее подспорье в нашей работе, – отметил главный врач лечеб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Андрей Ширяев. – Наша больница стоит на передовой в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На базе учреждения функционируют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и провизорный госпиталь. Средств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защиты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сотрудников, которые в своей работе могут столкнуться с особо опасным вирусом.

Отметим, что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еется достаточный запас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для врачей. Кроме тог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жидается еще одна поставка крупной партии защитных костюмов – 30 тысяч изделий.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егиона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поступит еще одна партия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от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мим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костюмов, в островную область привезут респираторы и защитные очк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ивают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транспорт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на заседании КЧС,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ронавируса соблюдать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предписано экипажам самолетов, прибывающих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а также дальнобойщикам, которые доставляют в область грузы.

– Все члены экипажей авиалайнеров во время рейса должны обязате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редства защиты. Это же касается пассажиров.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что среди тех, кто к нам прилетает, около 90 процентов пользуются масками, а перчатки надевают только 60 процентов пассажиров. Если у человека есть выраженные признаки каких-то простуд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например, кашель – он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во время полета, должен быть в защитном костюме,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Ольга Фунтусова.

Кроме того, членам экипажей предписано между рейсами оставаться в гостинице, исключив контакты с людьми. А для в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доставляют грузы на Сахалин через паромную переправу, обсерватором должна стать кабина грузовика. В течение всей поездки до конечной точки дальнобойщики не должны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с посторонними. В случае вынужденной

остановки, например, на АЗС, водителям предписано выходить из машины только в маске и перчатках.

Вместе с тем, принятые ранее меры позволили сократить поток приезж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 В регион перестали прилетать люди, у которых нет договора с работодателем.

Напомним, согласно новым правилам, прибывающие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должны предъявить местную регистрацию. Если таковой нет, гражданин обязан заранее, перед въездом в область, оформить цифровой пропуск.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с остров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Информацию о новой мере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направили во все организации.

Кроме того, с 27 мая для въезда на территори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еобходимы результаты лаборато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COVID-19. Сдать анализ нужно не ранее чем за три дня до прибытия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Указ губернатора касается только тех, у кого нет мест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5 сахалинце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Правнуки Победителей»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подвело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участием. Всего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6 тысяч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Побед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ых этапов стали более 400 человек. Из них экспертная комиссия выбрала 17 лучших – по два от кажд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России и одного иностранца –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из Туниса.

Ребята не только изучили открытые архивы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газеты и журналы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а также письма, документы, фотографии, сохранившиеся в семье. Многие прислали трогательные истории, основанные на воспоминаниях ветеран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ед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стали 5 островитян.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этапе выступили Виктория Глебова из Охи, Тимур Кутбидинов из села Ильинское, воспитанник горнозаводской школы Иван Кретьинин, ученица из села Первомайск Виолетта Неясова и учащийся школы № 6 из Холмска Никита Хухлин.

– Хотя наши ребята и не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тапа, но их работы по качеству, по отношению к личной семейной истории, по т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ую они провели с архивами, письмами, по крупицам восстанавливая образ прадеда-победителя,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юное поколение – наследники победителей, спасших мир от «коричневой чу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т их подвиг,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России» Андрей Фугенфиров.

Все участники, чьи работы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и условиям конкурса, смогут скачать сертификаты в личных кабинетах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www.pravnuki-pobediteley.ru. Там же свои дипломы могут найти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этапов.

Последние звонки в школ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йдут 5 июня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ик отметят более 2 800 выпускников.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окончанию учёбы, по решен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мог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очной форме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норм и социальной дистанции.

–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одиннадцатиклассников должны пройти скромно и без массового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 не более 30 минут. Школы будут сами выбирать наиболее приемлемые для них форматы, исходя из размеров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и пожеланий родителей, – отметила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При хорошей погоде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ровести торжественные школьные линейки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Нужно найти разумный подход в этом плане,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обезопасить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Вручение школьных аттестатов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девятых и одиннадцатых классов пройдет до 15 июня. График вы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пределяю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Кроме того, в 2020 году выпускные экзамены (ОГЭ) в девятых классах отменены, аттестация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по текущим оценкам. А одиннадцатиклассников, которые не планируют поступать в вузы в эт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освободили от сдачи ЕГЭ. При этом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определены новые сроки проведения Единого госэкзамена. Старт экзаменационной кампании назначен на 29 июня.

Ше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5 семей из 10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курсанты представили семейные презентации, дипломы, грамоты, фото- и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о свои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творче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достижениях.

Конкурс «Семья года»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 пятый раз.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являю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Фонд поддержки дет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сегда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конкурсе.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наши семьи ежегодно признают победителям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уровне. И в этот раз во всех номинациях у нас много ярких, талантливых семей с интерес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По итога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оргкомитет определил шесть побе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ят область в финал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года». Он состоится в октябре.

В номинации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вышли в лидеры супруги Виктория Аранова и Сергей Ирлик из Ноглик. Они приняли под опеку пятерых детей и сейчас воспитывают двоих сыновей и четырех дочерей. Это творческая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дети и родители увлекаются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ым искусством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здесь же Рухшона и Анварджон Фозиловы из Смирных, воспитывающие пятерых детей. Им прививают особое уважение к старшим и всячески развивают способности в учебе, творчестве и спорте.

В номинации «Семья – хранитель традиций» лучшими стали Анастасия и Аркадий Мартыновы из Корсакова. Своим двум дочерям они передают творческие традиции, основанные на увлечениях охотой и рыбалкой, живописью, изготовлением чучел сахалинских рыб, коллекционированием слонов и многим другим.

В этой же номинации пальму первенства разделили Олеся и Валентин Тышелович с тремя детьм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и любят семейные походы, поездки на рыбалку и совместный отдых.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традиции семейных праздников.

Еще одна семья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ветлана и Евгений Чайченко вышли в лидеры в номинации «Молодая семья». У пары трое детей и все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они проводят вместе, дружно и весело.

В номинации «Сельская семья»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чета Анастасии и Владимира Хисматулиных. Они успешно занимают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разводят кур, кроликов, свиней. В селе Ныш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известны своей хозяйственностью, взаимовыручкой, преданностью семье. Супруги воспитывают двоих детей.

Все победители и участ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получают дипломы 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В Аниве в 2021 году откроетс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и комплекс с бассейно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 побывал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ах и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возвед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 Все знают, что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в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неизбежно возникнут сложности. Но все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возводятся,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м достраивать. Сфера соцкультбыта – наш приорите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етскую школу искусств, рассчитанную на 350 учащихся, в Аниве возводят на улице Калинина. Здесь будет киноконцертный зал на 290 гостей с эстрадо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места инвалидов-колясочников. Кроме того, в просторных помещениях разместят читальный зал и абонемент библиотеки, игровую, артистические, кладовую-костюмерную, студии хореографии и звукозаписи, а также кабинеты и помещения кинопроектной и свето-аппаратной.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троители идут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Сдать объект должны в декабре 2021 года.

Еще одна масштабная стройка –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Здесь разместятся гимнастический и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ы, бассейн размером 25 на 10 метров с трибунами для зрителей.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буфет с подсобным помещением, солярий на 2 человека. Сдать объект должны до 1 августа 2021 года.

Как отметил глав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Артем Лазарев,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и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зволит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в районе вопрос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соци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В ходе поездк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мэру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состояние дорог. Прежде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о срочно провести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Вопрос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капитальног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тором нуждаю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улицы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планируют рассмотреть на одном из ближайших заседаний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기획특집

부산 : 시와 열정의 항구

5. 다채로운 인프라 위에서 태어난 영화 도시

부산이 '영화 도시'인 이유는 단지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이 아니다. 일반 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을 상영하는 시네마테크,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필름 전문 커미션 부산영상위원회, 독자적 길을 걷고 있는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등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적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기구 및 단체들 덕분이다.



2019년 10월 3일, 영화의전당에서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행사가 열리고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 역할을 위해 2011년 개관한 영화의전당은 4층 건물 2동과 9층 건물 1동으로 이루어진 부산 영화 인프라의 중심이다. © 뉴스뱅크

2017년 9월, 부산에 관한 유의미한 책 한 권이 출간됐다. 국립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세 번째 인문학 총서 『부산의 문화 인프라와 페스티벌』이다. 부산의 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제안이 담겨 있는 책이다. 나는 영화 분야를 맡아 「부산의 영화 인프라와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글을 썼다.

그때 나는 자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책의 총론에 언급된 바람처럼 과연 부산은 '문화 불모지'에서 '문화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회의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그런 탈바꿈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고를 준비하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은 전격적으로 바뀌었다. 적어도 영화 분야에서는 그랬다.

이 글은 그 원고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일종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원고를 쓰기 전까지 나는 부산의 영화 인프라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해 본 적이 없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영화 부산'과 '부산 영화'의 전부라고 간주해 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독한 오해요 편견이었다. 꼼꼼히 짚어 보니, 부산에는 주목해야 마땅한 상당한 비중의 영화 인프라가 존재해 왔던 것이다. 당장 영화 관련 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13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다. 그 기구들의 활동 영역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산의 핵심적 영화 인프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 기구들 덕분에 부산의 영화적 가치가 한층 더 제고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부산이라는 지역성·장소성·공간성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두 기구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사례를 보여 줄 수 있다. 그것들은 바로 BIFF를 필두로 부산시네마테크와 영화의전당,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등이다. 모두 예외 없이 '대한민국 NO. 1'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영화 자산들이다.

선구적 역할

시네마테크(Cinematheque)는 필름 보관소 또는 보관된 영화를 상영·감상하는 곳을 가리킨다. 시네마테크부산은 1999년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에 전용관 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 시네마테크로 출범해, 2002년 5월부터 본연의 활동을 시작했다. 시중 영화관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 고전 영화나 수준 높은 예술·독립영화들을 주로 상영해 왔다. 2007년부터는 필름 아카이브 역할까지 겸했으며, 다채로운 교육 강좌들로 일반 시민들의 영화적 안목을 제고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이곳은 2011년 10월 개관한 영화의전당(Busan Cinema Center)으로 이전해 제2기를 맞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건축 설계 회사 쿵 힘멜브라우(Coop Himmelblau)의 설계 및 디자인으로 지어져 건축물로도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영화의전당은 시네마테크는 물론 BIFF의 재도약에 결정적 기여를 해 온 일등공신이다.

부산영상위원회(Busan Film Commission) 또한 부산의 핵심적 영화 인프라를 이루는 기구 중 하나다. 영화 제작 원스톱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1999년에 국내 최초,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발족시킨 필름 전문 커미션이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영화 르네상스에 부응해 BFC가 탄생하자, 다른 시도에서도 앞다퉈 영상위원회들이 출범했다. 현재 부산을 필두로 지역 영상위원회는 전국에 총 13개가 있다. 한국 영상위원회들의 만행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BFC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1,303편의 영화와 영상물 촬영을 지원했다. 그 밖에도 편리한 촬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와 시네마하우스 호텔 인 부산, 지역의 영화·영상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부산영상벤처센터, 영화 전문 교육을 이끄는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부산과 수도권의 영화·영상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창작 인력을 양성하는 영상산업센터 등 영화 산업 기반의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

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영화 부산'과 '부산 영화'의 전부라고 간주해 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독한 오해요 편견이었다.

꼼꼼히 짚어 보니, 부산에는 주목해야 마땅한 상당한 비중의 영화 인프라가 존재해 왔던 것이다.

독자적인 인프라

1950년 9월 임시 수도 부산에서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창립되었다. 이어 1958년에 발족한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국내 유일의 지역 영화 비평가 그룹으로 "영화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영화 작품을 비평하고 일반의 감상력을 높이며 연구를 조성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회는 한때 부산일보가 1958년 제정한 부일영화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엄격한 비평뿐 아니라 우수 영화를 추천하는 등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목적했던 대로 시민들의 영화 감상력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협회는 2000년부터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을 수여해 왔다. 이 상은 협회의 존재감을 가장 뚜렷이 각인시켜 온, 지역적 색채가 물씬 풍기는 파격적인 영화상이다. 의도적 비주류성 내지 지역적 마이너리티 의식의 결과로 읽히는 그 파격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평론가 조직인 한국영화평론가협회의 상과 비교하면 바로 드러난다. 가령 2000년 제20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의 최우수작품상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맞물린 개인의 불행을 독특한 플롯으로 구성한 이창동(Lee Chang-dong 李滄東) 감독의 「박하사탕」(Peppermint Candy)이었고, 같은 해 제1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의 대상은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삼각 관계를 그린 홍상수(Hong Sang-soo 洪常秀) 감독의 「오! 수정」(Virgin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이었다. 「오! 수정」은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는 단 한 부문에서도 수상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은 이창동 감독에게 감독상을 안겨준 데 반해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My Heart)을 감독한 배창호(Bae Chang-ho 裴昶浩) 감독의 품에 상을 안겼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의 최우수작품상은 1987년 6월 항쟁을 배경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갈망한 대중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장준환(Jang Joon-hwan 張駿桓) 감독의 「1987」(1987: When the Day Comes)이었고,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대상은 2009년 서울 용산의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화제로 숨진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공동정범」(The Remnants)이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어도 이 두 협회의 상이 보여주는 적잖은 차이는 부산영화평론가협회의 존재 이유를 확연히 설명한다. 언제부터인가 회원수 등 규모

에서 비교가 안 되는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은 줄곧 자신들만의 노선을 꺾끗이 견지해 오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에는 언급할 만한 영화 인프라를 이루고 있는 조직 및 단체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 중에는 1999년 공식 창립된 부산독립영화협회와 그 협회가 주최하며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부산독립영화제, 공정성 및 신뢰성 등에서는 국내 그 어떤 영화상에도 뒤떨어지지 않을 부일영화상, 1980년 대한민국단편영화제로 출발해 술한 변천을 거치며 올해 36회를 맞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해운대에서는 '영화의 거리'가 부산 시민들을 포함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환영한다. 부산역 길 건너 '텍사스촌'에는 박찬욱(Park Chan-wook 朴贊郁) 감독의 2003년작 「올드 보이」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군만두집 장성향(長盛香)이 지금도 변함없이 손님들의 입맛을 달군다. 중구 대청로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관람객들을 향해 손짓 한다. 그러니 부산은 영화 도시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



'2017 부산푸드필름페스타' 기간 중 영화의전당 야외 광장에서 열린 공연에 방문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영화의전당, 부산푸드필름페스타(Busan Cinema Center, Busan Food Film Festa)



영화의전당 영화아카데미 학생들이 영상 제작 실습을하고 있다. 영화의전당은 영화 예술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50개 이상의 강좌가 개설되는 영화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영화의전당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연상호 감독의 2016년 개봉작 <부산행>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운영하는 이곳은 각각 250평과 500평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가 갖춰져 있다. ©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xt Entertainment World)

전찬일(Jeon Chan-il 全燦一) 영화평론가,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
출처: <https://koreana.or.kr/>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그림을 배우지 않은 독자들의 작품
 - 예술 학교 및 예술 스튜디오의 학생 작품
-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인증서와 귀중한 선물인 책들이 수여될 것이다. 대회 결과는 도서관 홈페이지인 sakhodb.ru에서 확인할 수 있다.

В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Великой Победе посвяща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областного литературно-твор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Великой Победе посвящается".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лся с 3 февраля по 22 мая в целях приобщения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к чтению литературы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и в честь 75-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одов в рамках Года памяти и славы.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16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Поступили 228 конкурсных работ из 13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и из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Конкурсанты представили работы в следующих номинациях:

- "Читай, чтобы помнить!" — собственн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творчество (отзыв, сочинени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 "В книжной памяти — мгновения войны" — буктрейлер по прочитанным книгам и ключевым события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 "Была война... Была Победа!" — рисунок по группам:

- не обучающиеся рисованию читатели,
- учащиеся школ искусств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студий.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наградят дипломами и ценными подарками — книгами. Результаты конкурса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на сайте библиотеки sakhodb.ru,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иблиотеки.

석유가스 분야 투자를 희망하던 여성, 사기 당해

지난 5월 22일, 1949년생의 한 연금 수령자가 홈스크 시 내무관리국을 찾아 사기 신고를 하였다. 여자는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아 25만 루블리를 잃었다고 했다.

경찰과의 조사에서 피해자는 인터넷에서 여러 페이지를 훑어보다가 가스 및 석유 투자 프로그램에 돈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는 광고를 접했다. 이 제안에 관심이 생겼고, 그녀는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무명의 남성과 통화하던 중 투자 계획을 개설해 2만 루블을 이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또 이 사기범은 이 여성을 설득하여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석유와 가스회사의 지분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요구에 따른 후 피해자는 투자 이익을 얻기를 기대했으나, 며칠 후 사기범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사기범들은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25만 루블리를 더 투자하라고 설득하면서 지금 당장 투자 수익률이 좋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는 저축한 돈을 사기당하였다고 주내무관리국 홍보

실이 보도했다.

Сахалинка, желавшая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нефтегазовую сферу, наткнулась на мошенников

22 мая в отдел МВД России по Холмскому городскому округу с заявлением обратилась пенсионерка 1949 года рождения. Женщи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была обманута неизвестными людьми и потеряла сбережения в размере 25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беседе с полицейскими потерпевшая уточнила, что просматривала различные страницы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когда наткнулась на рекламу. В ней предлагали вложить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в программу инвестиций газа и нефти. Гражданку заинтересовало да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и она позвонила по указанному номеру. В ходе беседы с неизвестным мужчиной она узнала, что ей необходимо заве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счет и перевести на него 20 тысяч рублей. Кроме этого, мошенник уговорил женщину установить на свой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стороннюю программу, якобы для отслеживания акций нефтегазовых компаний. Выполнив эти требования, потерпевшая надеялась получать прибыль, но спустя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вновь связались с заявительницей. Продолжая противоправное деяние, аферисты уговорили пенсионерку перевести им еще 250 тысяч рублей, аргументируя это тем, что именно сейчас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хорошую прибыль от инвестиций. Отдав мошенникам все свои сбережения, женщина так и не получила никакой выгод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УМВД.

(사할린주, 러시아 및 외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